

이제라도 에너지신산업 제대로 육성하자

아침을 열며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2020년대 접어들어 지구촌은 전에 보지 못했던 유난한 격변과 암울한 미래상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이미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권 전쟁이 불길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우리의 3대 무역국이자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은 우리에게 결코 이로울 수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중동권 전쟁 또한 유가 상승과 밀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북한군 참여로 인한 남북 문제까지 얽히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 위에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제4차 산업혁명까지 오버랩되고 있어 앞으로 기회적 요인보다는 위협적 요인들에 직면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경제전문기관이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가 가장 미흡하다고 격정해 줄 정도이다. 특히 지금까지 연명해 온 반도체 이후의 성장동력산업이 보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대비 태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정부나 여야 정치권에서 이러한 위협적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은 이처럼 대외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지역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차체에 광주·전남만의 독특한 먹

거리를 개발하는 전환기를 맞이했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본다. 기실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는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다. 그럼에도 가시적으로 광주·전남하면 바로 떠올라 광주·전남의 브랜드 역할을 하는 성장동력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광주는 전국 최초로 첨단산업 단지가 조성되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서 기대에 부풀기도 했었지만, 지금 첨단산업을 광주의 먹거리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남 또한 대한민국 농도라는 전통을 이어오다가 산업화시대를 맞아 전국 굴지의 제철·화학산업에 조선산업이 보태지면서 활력을 찾기도 했으나 이들 산업의 사양화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적 프로젝트로 '혁신도시'가 시작되고, 다핵심체계도 광주·전남은 당시 전국 10대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로 추진하여 '한전'이라는 선물을 받아 광주·전남 모두 에너지신산업을 성장동력산업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공동혁신도시 추진에 미력이나마 일익을 담당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알찬 성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先) 성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당초 한전이 구상하고 제시했던 에너지벨리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앙정부, 광주·전남, 한전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신산업을 국가적 성장동력산업이자 광주·전남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부연하면,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권 첨단산업벨트, 동부권 IT융복합벨트, 서남권 신재생에너지벨트를 연계한 광주·전남산학연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광주·전남 공동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혁신거점으로서 광주·전남의 신성장거점이자 국가적 성장거점의 역할까지 부여받은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게 흘러갔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한전은 물론, 광주·전남도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빛가람혁신도시가 에너지신산업의 성장거점임에도 전국적으로 광주·전남 외에 전북 새만금,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을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추가로 지정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관계로 지역에서는 조용히 인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에너지신산업이 광주·전남의 성장동력산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굳이 유형적인 성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를 들 수 있으나, 유치 때부터 광주와 전남의 과도한 경쟁으로 지방비 부담만 대폭 늘어났으며, 한전도 어려워진 경영사정을 이유로 역부족인 것 같고, 광주시마저 전남 사업으로 거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당초의 에너지벨리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의 미진한 성과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하루빨리 재출발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어렵게 전개되는 상황까지 감안하여 전에 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사고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더 욕심을 내자면 공동혁신도시와 당초 에너지벨리에 담긴 광주·전남산학연클러스터 취지를 살려 광

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늦게나마 조성되고 출범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부터 광주와 전남의 협력이 없이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이야말로 1018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전라도가 새로운 천년을 맞는 진정한 거듭남이자 새로운 출발이라 자부한다. 부디 광주·전남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의 허브로서 새로운 녹색성장시대 가장 살기좋은 터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社說

시급하고 절실한 공공배달앱 정부지원

대기업 독점 횡포 막는 해법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공배달앱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가 2%의 낮은 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해 지역 시장 점유율 17%까지 성장했지만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공공배달앱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게 강 시장의 설명이다. 공룡처럼 거대해진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 맞서 소상공인을 지키려는 의지가 읽혀진다.

음식을 중개하고, 배달까지 대행해주는 배달앱은 음식업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플랫폼이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은 많은 수수료를 떼가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부담이 크다. 당장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의 배달 수수료는 10%에 육박한다. 배달비도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지역에 따라 3500원에서 5000원까지 다양하고 업체에 따라 '거리 할증', '주말 할증', '기온 할증', '아파트 할증' 등 할증 요금도 다양하게 부과한다고 한다.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결코 이

익이 될 수 없는 대기업의 횡포다. 이런 기술어린 운동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공공배달앱이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민간배달앱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에 달하고 공공배달앱은 4%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용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해 빠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배달앱의 장점을 공공배달앱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2000억 원에 이르는 배달수수료가 민간시장으로 흡수된다는 것도 문제다.

국회 등 정치권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 등 제도 개선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 정부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지원해야 한다. "기왕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한 강기정 시장의 말에 민간배달앱의 독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담겨있다.

주민도 설득 못하면서 안전 담보 하겠나

한빛1·2호기 주민공청회 완료

한빛원자력본부가 한빛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완료했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1986년 8월, 6월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2025년 12월22일과 2026년 9월 11일이면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게 된다. 아직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가 남아있지만 이번 공청회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마무리됐다.

30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본부는 지난 28일 무안에 이어 29일 장성에서 전북 불안 의견 수렴 대상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주민공청회를 마쳤다.

공청회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취지 설명과 주민공람 주요 의견 설명, 주민 의견 진술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 공람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뤄졌으며 영광, 함평, 무안, 장성과 전북 부안, 고창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원전은 탄소중립 시대 꼭 필요한 친환경·효율 에너지다. 원전이 축소될 경우 에너지 수급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원전의 수명연장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경험했듯 원전의 핵심은 안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빛원전은 치명적 고장부터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30일 진행된 마지막 의견 수렴에서도 주민들이 일방적인 진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소통이 없고 목표를 정해둔 듯 일사불란한 공청회가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원전의 가치는 안전성에 있다. 한빛 본부도 '안전한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옳은 얘기다. 한빛 본부는 지금이라도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실속 없이 파행으로 끝난 공청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있으나 마나 한 공청회'로는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주민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갈등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원전의 수명을 연장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www.jnilbo.com m.jnilbo.com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전일보

@jnilbo

Kakao Talk : 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서석대



KIA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를 누르고 12번째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오른 28일, 지인들과 야구 중계를 지켜보고 우승의 기쁨을 나누다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었다. 시내 버스 운행은 종료됐고 택시 잡기도 어려워 모두 귀가를 서둘러야 할 시간이지만, 광주의 밤 풍경은 평소와는 달랐다. 주점 등지에서 경기를 지켜보다 나온 듯, KIA 유니폼을 입은 이들은 거리에 삼삼오오 모여 야구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총장로 이곳 저곳 둘러보다 어렵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광

KIA 우승한 날 밤에

이젠 익숙해질 법도 한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임에도, 이날 밤 광주가 남다른 감동과 흥분에 휩싸인 건 1987년 이후 37년 만에 안방에서 맞이한 우승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를 중계한 MBC스포츠플러스 한명재 캐스터는 KIA의 우승 순간 "1987년 이후 지난 37년간 이곳 광주에서는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 KIA 타이거즈가 2024년 정상에 오릅니다"라며 지역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KBS 김진웅 캐스터 역시 "7년 만에 한반도를 뒤덮는 호랑이 물결, 37년 만에 내 고향에서 느끼는 영광의 숨결"이라는 말로 그간 숱한 우승에도 정작 광주 안방에서는 우승 행가래를 치지 못했던 아쉬움을 짚었다.

'80년 광주'의 생채기를 어루만지고 울분을 달래주었던 '전통의 명가' 타이거즈가 돌아왔다. 선수들의 빼어난 플레이와 팬들의 뜨거운 응원으로 한국시리즈 'V12'의 위업을 이룬 이날 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날'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박성원 편집국장